

[주일 말씀]  
창조의 목적 - 하나님 나라 건축

2018. 6. 3. 이현래 목사님

성경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1:1).”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얻으라(막1:15).”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지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한다고 했다. 8년간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경을 배울 때도 그랬고 공부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내 자신이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 같다.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든지 많다. 그런 것만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갈망하고 계셨는지를 몰랐던 것 같다. 향방 없이 달음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주먹을 칠 때 상대방을 보고 쳐야 되는데, 성경에는 허공을 친다고 표현되었다. 꼭 그 짝이었던 것 같다. 그때 그 8년 간 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 돌이킬 수 없지만 굉장히 미안하다. 8년간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모를 것이다. 내가 방향을 모르니까.

지난번 교역자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사역자들의 책임은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손만 잡고 가는 것이다.

좀 이상한 예이지만 집안에 지네가 나타난다. 지네 대가리를 완전히 죽인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다 살아있어서 그냥 기어간다. 머리가 없기 때문에 향방이 없다.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길가에서 보면 그러다가 햇빛에 말라서 죽는다. 머리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고 동산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꼭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다.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더 잘사는 것도 아니고, 더 못사는 것도 아니다. 잘 사고 못사는 것은 자기 나름이다. 자기가 잘하면 잘살 수 있고, 자기가 잘못하면 잘 못산다. 잘살아 보겠다고 예수 믿는 것은 헛일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머리가 필요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 문제가 된다. 방향이 없는 데는 많다. 열심히 살라고 하는 데는 많다. 성실하게 살라는 데도 많다. 정직하게 살라는 데도 많다. 수없이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것처럼 딱한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그것처럼 딱한 일이 더 없다.

##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왜? 사람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 예수님은 왜 필요한가?

공자님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다. 석가모니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분명해서이다.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뻔했다. 죽으면 천당 가겠지 하는 믿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다니지 않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방향이 없이 간다면 그렇다.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딱한 일이 없다. 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정직한 것인가? 깔끔한 것인가? 솔직한 것인가? 다 좋은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안다.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선이 필요하다. 또 선이나 악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악이다. 사회적으로는 사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악이다. 국가적으로는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악이다. 다 다르다.

아주 유명한 예가 있다. 일본에 가가와도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다. 하천풍언(賀川豊彦)이라는 성자라고 이름이 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이다. 왜냐하면 결핵환자들과 같이 살다가 결핵에 걸리고, 문둥병자와 같이 살다가 문둥병에 걸린 분이다.

일본에서는 성자로 불리는 분이다. 얼마나 기독교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 정신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딱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대동아전쟁 때,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고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동남아 일대를 점령해 가던 때이다. 그 전쟁 때 이분이 인도에 가서 간디를 방문했다. 간디가 하는 말이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전쟁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거룩한 전쟁이냐는 것이다. 왜? 대동아를 한꺼번에 묶어서 세계 최강의 블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다.

당신도 이 전쟁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간디가 딱 돌아앉았다고 한다. 내가 시연을 하면 좋겠는데 뺨 돌아앉아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의 양심인 간디가 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악이다. 동남아 일대를 전쟁판으로 몰고 가는 판인데,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사람의 관념이다.

일본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은 국가주의이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하고 훌륭하다. 딱 국가 앞에 봉착하면 일본사람들은 전부다 국가주의이다. 그런 분이 그

전쟁을 보고 성전이라고 했다.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렵다. 우리 생각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악이 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파괴시킨 것이다. 아말렉을 왜 무찔렀는가?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악이다. 그들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성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다.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겠는가? 다 자기입장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자기대로 읽게 된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사람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사람 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굉장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한 데가 있다. 100% 완전한 이성이나 100% 완전한 양심을 없다. 어딘가에 다 물들어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소원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그분의 나라이다. 자기의 나라를 갖는 것이다. 나라라는 것은 그 안에 자기가 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너무 풍성한 분이지만 나라가 없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바로의 종인데 거기에 무엇을 내놓겠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내놓겠는가? 아무 것도 안 된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갔을 때, 왜 내 백성을 내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한 사흘 길 쯤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나가려고 하느냐고 하지 않았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 되고 한 사흘 길쭉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애굽 안에서는 우리 여호와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 사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말이었다. 여기서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만 할 수 있지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하면 정신병자이다.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동에 가는 것이다.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했다가는 죽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해방직후에 우리나라는 적화될 가능성이 많았다. 왜냐하면 남로당이 굉장히 세력이 강했다. 군대까지도 남로당이 다 침투해 있었다. 그래서 정부수립을 한쪽에서는 빨리 해

야 된다고 하고, 남로당에서는 그것을 반대했다.

1948년 5월에 총선거가 있었다. 총선거 전에 일어났던 것이 제주폭동, 대구폭동, 이런 것이 총선거를 막으려고 일어났다. 한쪽에서는 빨리 정부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하여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때 만일 적화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보면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만일 그때 적화되었다면 우리와 북한사람이 뭐가 다르겠는가? 똑같다.

6.25때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와 부산만 두고 다 점령되었다. UN군이 며칠만 늦게 왔어도 다 점령되고 말았다. 한번 다 점령되고 나면 다시 찾기가 어렵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 고마운 것이다. 왜? 우리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수복을 했다.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주 악질로 생각한다.

인천 시민공원에 세워진 맥아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철거하라고 맨날 데모를 했다. 우리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자기들은 원수이다. 맥아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적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하도 속이 상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때 노\*\*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니 그 다음날부터 조용해졌다.

우리가 적화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고 예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고 공평한 사회가 되고 정직한 사회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이 자유가 없을 것이다.

이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유국가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 \* 나라는 건축됨

**하나님에게는 나라가 필요하다.**

단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필요하다.

**창조의 목적은 그의 나라에 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 보면 1장에는 건축의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만물이 다 창조된다. 만물의 최고봉은 인간이다.

그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다. 창세기 1장은 재료를 만든 것이다. 건축을 하려면 재료가 먼저 있어야 한다.

**2장은 무엇인가? 2장의 마지막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다. 연합이다.**

1장은 재료를 만드는 것이고, 2장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명백하게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나라에 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재료를 만들고, 2장에서는 연합을 시킨 것이다. 그 연합은 어떤 연합인가? 그냥 연합이 아니고 생명의 연합이다.**

연합도 여러 가지가 있다. 히틀러 시대의 연합도 있고, 김일성 시대의 연합도 있고, 연합도 많다. 이것은 생명의 연합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이다.

다른 만물들이 왔는데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배필이 없으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 생명이라는 뜻이다.

아담이 그 때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는 말을 하게 되었다. 세상의 어떤 연애편지에도 이런 말이 없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표현이 없다.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 그 말이 정말 신기한 말이다.

**연합으로 건축된 나라, 그것은 생명의 연합이다.** 세상에 연합이 많다. 그런데 생명의 연합이다.

### \* 하나님의 소원 -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가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있으니까 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되는 나라이다. **재료가 있고 연합이 있어서 건축되는 나라이다.**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영역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 주권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정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다. 정부 때문에 나라가 된다. 정부가 결국 주권이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 사람은 그대로 다 있었지만 나라가 아니었다. 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나라가 없으면 주권자이지만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창조자이니까 주권자이다. 그런데도 자기 나라가 없으면 주권을 행사할 데가 없다. 임금님 혼자 앉아서 뭘 하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백성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별 것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만 주권이 행사될 수 있다. 여기서도 ‘노’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하나님 통치권 하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그의 통치권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 우리가 귀중하다. 자기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기 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없으면 주권을 행사할 데가 없다.

우리가 그의 국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다.

개에게 주권을 행사하겠는가? 돼지에게 주권을 행사하겠는가? 코끼리에게 주권을 행사하겠는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권을 행사할 데가 있는 것이다. 말을 하면 사람이 듣는다. 소는 말을 못 듣는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면 사람은 알아듣지만 동물은 알아듣지 못한다. 지어도 지어도 만족이 없어서 맨 마지막 여섯 째 날 오후에 할 수 없이 사람을 지었다. 아무리 지어놓아도 자기 주권을 행사할 국민이 안 된다.

사람 밖에는 자기 주권을 행사할 국민이 안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분은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하겠는가? 그 대상이 없으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랑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생기면 사랑하게 된다.

여자가 사랑 덩어리가 아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다 성모마리아가 된다. 아기에게만 그렇다. 자기의 전부를 드려서 아기를 키운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속에 있다가 아기가 있으면 나온다.

그런데 아기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축복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질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워서 덕 볼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까지는 큰 욕심이다. 키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자녀가 없었으면 언제 그런 사랑이 나오겠는가? 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길에 뛰어든 엄마가 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선한 여자가 아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런 사랑이 나온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속에서 아버지 마음이 생긴다. 내 속에서 어머니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 나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도 사랑할 대상을 만나야지 맨날 돼지나 와있으면 무슨 재미로 사시겠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공작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할 대상이 못되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는가.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를 함부로 사용할 존재가 아니다. 함부로 버릴 존재가 아니다. 나를 함부로 생각할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나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남도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내가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귀중하게 여겨야 남도 그 자식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부모가 맨날 욕이나 하고 너 왜 이렇게 못났냐,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 옆에 사람까지 다 그 아이를 미워한다. 내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나님도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 모른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분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저렇게 완고한 백성들까지라도 저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오겠는가? 맨날 해도 우상숭배하지, 걸핏하면 배반하고 나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자비가 많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보고 자비가 넘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념적인 말이다. 이스라엘이 우리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역사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이다.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더라. 밥이 없을 때 만나를 주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더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나를 덮어주더라.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다. 위험한 곳에 이를 때 큰 손으로 나를 덮어주더라는 노래가 있다. 경험해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부처님이 그런지 아닌지는 관념적인 문제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해서 하는 말은 체험적인 말이다. 역사적인 경험이다.

성경은 전부 그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으면 100% 아멘이 되고 이 경험이 없으면 아멘이 안 된다. 지식이 되고 만다.

하나님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아이들은 클 때는 부모가 필요해서 좋아한다. 큰 다음에는 부모가 별로 필요치 않다. 성인이 되고 결혼하여 살면 별로 부모가 중요한지 모른다. 그냥 의리상 도덕상 윤리상 그런 것이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는 옛날의 그런 감정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효를 가르치는 것이다. 저절로 나오면 뭣하러 가르치겠는가? 나오지 않으니까 효를 가르친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한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기 때문에 못 말리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현상이다. 어쩔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끊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쫓아다닌다.**

호세야서가 그것이다. 자기 아내가 바람기가 나서 도망을 친다. 때로는 이 집에 가 있고, 때로는 저 집에 가 있고, 때로는 술집에 가 있다. 그런데 호세야가 그 마누라를 잊지 못해서 계속 보리 한 되 가지고 가고 밀 한 되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온다고 한다. 그것을 써놓은 것이 호세야서이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치워버린다. 급하면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부르는가?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옹색한 나라에서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다. 잘사는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 하러 '주시옵소서.' 라고 하겠는가? 기도할 일이 별로 없다.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준다.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갖는다고 돈을 주고, 가면 간다고 돈을 준다. 애기 낳으면 애기 낳는다고 돈을 주고, 죽으면 죽었다고 돈 주고, 내가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일하는 사람은 취미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

공부도 우리는 죽으라고 싸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공부를 하나 하지 않으나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공부도 꼭 하고 싶은 사람, 학문적 취미가 있는 사람이 한다. 지상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지상천국이 하나님이 없는 지상천국이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안 된다. 다 자기 길로 가 버려도 쫓아 다니고 찾아다닌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누가 목마른가? 하나님이 목마르다.** 우리는 잘살면 모른다. 자식들도 잘살면 편지 안 한다.

언제 편지 하는가? 돈이 없을 때, 아쉬울 때 병들었을 때, 그때 부모 생각이 난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자식들이 가서 전화를 안 하고 편지도 안하면 관심한 놈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잘살고 있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하나님이 더욱더 갈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찾은 줄 안다. 그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를 찾기 때문에 내가 발견된 것이지 내가 찾아서 갈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 나도 그랬다.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좋으니까 교회를 다녔지 갈망해 본 적이 없다. 그분이 필요하니까 나를 고른 것이지 알고 보니 그렇다. 그분이 필요하니까 나를 부른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매달렸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나태해져서 이 소리가 교회가 안 될 소리이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교회가 잘 된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이래야 사람이 가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야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고 있으니 이상하다. 여러분이 정상인지 그 사람들이 정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렇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식을 찾지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열 번 찾으면 자식은 한번 찾는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날을 만들고 부모님 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건축되는 나라다. 그냥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되는 나라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지파로 건축되었다. 열두지파 외에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미국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방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했다. 정통 유대교인들 회당에는 못 들어간다. 미국에 가면 정통 골수가 있고 조금 벗어난 사람, 약간 세속화 된 사람들이 있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다르다. 거기서 허락해서 들어가 보았다.

지금도 자기들만의 나라니까 이방인들은 회당 자체에 출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사울의 왕국이 생기고 다윗의 왕국이 생겼는데 이것은 전부 다 만들어진 나라다. 원래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만들어진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1958년에 정부수립이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름도 길다. 대한민국은 간단하다. 우리는 그냥 한국이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런데 북한은 복잡하다. 복잡한 것일수록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이 좋은 것이다.

###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그전에 이스라엘 열두지파로 건축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망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이니까 예수의 나라라고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어서, 또 한쪽에서는 빛나가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아서 나라를 건축했다.

그러면 예수의 나라는 어떻게 건축되는 것인가? 옛날 그 나라는 이미 지나갔다. 망해버렸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왔는데, 예수의 나라이다.

### **예수께서는 어떻게 나라를 세우셨는가?**

첫째로 백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옛날 그때 그 사람을 가지고는 도로 똑같은 나라밖에 안 된다. 아무리 주권이 있어도 백성이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정부수립을 했을 때 헌법이나 이런 것이 미국의 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하더라. 우리의 민도가 그렇게 안 된다. 민도 때문에 그런 나라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재료가 안 되었다. 단지 혈통이었다. 백성도 제사장도 혈통으로 되었고 왕도 혈통으로 되었다. 혈통이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이다. 백성도 그렇다.

이번에 지은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의 나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다.**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유명한 사람에게, 유대인 공회의 회원이니까 유대인 백성 속에서 70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립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모르냐?’ 니고데모가 역장이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는가. 시골 촌뜨기가 자기가 누구인데 자기 앞에 그것도 모르느냐고 했다.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수양이 잘 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솔직히 물으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요3:6,7).”**

이것은 더 못 알아듣는 말이다. 그랬더니 또 있다가 하는 말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 3:8).”** 그것은 더 못 알아듣는다. 점점 더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난 후에 나온 말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5절 말씀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수박 겉핥기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은 참 좋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인지를 모른다. “이처럼 사랑하사”를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사”를 그냥 감성적으로 듣는다. 그런데 이성이 발달해서 커지면 회의가 생긴다. 느낌은 참 좋은 느낌인데 내가 모르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 번 말씀 드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의 뱀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이 요한복음이 써졌다. 그것이 기록된 것은 상황이 다 끝나고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 것을 알고 난 후에야 쓴 말이니깐 그때 당시에 한 말을 알아듣고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데 그 어려운 말을 시골뜨기 어부들, 촌놈들이 알아들겠는가?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알았다. 아 이거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를 이야기한 것이었구나. 수십 년 후에 그때야 안 것이다.

**어떻게 예수는 사람을 거듭나게 했는가?**

지금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에서 인간을 원 위치로 회복시켰다.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다 후천적인 것들이다. 교육을 받았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았든지 종교를 받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것 이외의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만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가려져 있어서 연합이 안 된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안 사람, 적게 안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올려놓으니까 다 똑같다. 한자리만 발견된다. 10억이 되었든지 100억이 되었든지 오직 자리는 한 자리뿐이다.

이것이 환원하는 자리이다. 구속된 자리이다. 원위치로 회복된 자리이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 외의 것들은 배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어느 날 가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날 은사를 받아서 앓은뱅이도 일으켰다고 한다.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도 일어나라고 하면 앓은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를 가다가 길가에서 앓은뱅이를 만났다. 옛날 생각만 하고 앓은뱅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겠는가? 일어나겠는가? 못 일어나니까 이 앓은뱅이가 얼마나 욕을 하겠는가.

오그라진 사람을 끄집어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겠는가. 욕만 실컷 얻어먹고 왔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은사는 그때 필요해서 준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다. 그 사람 자신 같으면 죽어도 한다. 늙고 나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힘이 없어졌다. 은사도 기도를 해야 오지 그냥 오는 은사는 없는 것 같더라.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은사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좀 해보니까 안 되겠어서 포기 했다. 나는 끝가지 뿌리 뽑는 성격이 못 된다. 뿌리 뽑으려고 하면 우선 체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일찍 포기를 한다.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하고 땅을 파라고 하고 하는데, 도저히 그 대열에 못 끼겠더라.

정말로 아무 은사가 없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쓰고 있다. 은사는 없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쓰고 있다. 나는 그것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은사보다 더 감사한 것을 주셨다.

**사람이 거듭난 것은 십자가에 가서 다시 발견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내가 몰라서 애를 많이 썼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몰라서 애를 많이 썼다. 책 써놓은 것을 보니 다 아리송해서 모르겠더라. 어떤 사람이 ‘성령’ 이라는 책을 써 놓았길래 여기는 뭐가 되는가보다 하고 끝까지 읽어보았다.

끝까지 읽어봐도 바람이 임의로 와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고 한다. 기껏 한권을 다 읽고 나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소리는 누구는 못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거듭난 것은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원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 새 생명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 어떻게 새 생명을 받는가? 새 생명이 어디 하늘에 있는가? **새 생명은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할 때, 그 연합된 생명이다.**

선악과를 먹고 분리된 생명이 이제 연합된 생명이다. 그것이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쉽다. 새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다. **연합한 생명으로 살아보라. 살아보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

로마서 5장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분과 연합되면 새 생명으로 간다.

우리가 형제와 연합해도 삶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과 내가 원수였는데,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서 같은 생명끼리 연합이 되고 한 떡이 되면 당장에 두 사람 사이에 인생이 달라진다.

그놈 때문에 꿈에도 나오고 밥맛이 없던 놈이 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도저히 못 참겠던 일이 그놈과 연합하고 나니까 참을 일도 없어졌다.

옛날에 내가 잊어보려고 하니 안 되었다. 나를 헐하는 사람들을 잊어보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쫓아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기도하면 회개하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고 집에 내려오면 그대로 남아있다.

그놈이 와도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다. 도로 또 올라오기 시작한다.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중학생 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고 하기에 노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써오라고 했더니 다음날 써왔다. 아주 착실한 학생이다.

읽어보니 그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 이것을 할 수 있냐고 하니 중학생이니까 그거야 안 되겠냐고 했다. 아주 착한 학생이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용서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나는 용서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용서는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들었겠는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고 나서 수년 후에 대학생이 되어서 어떤 여학생과 연애를 했는데 어찌되었는지 연애한 여학생이 배신을 했다.

이 순진한 학생이 너무 순진한 사람인데 이것을 참으려고 술도 먹어보고 잊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술을 잔뜩 먹고 와서 그 집에 가서 깡판을 부렸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고 난후에 뒤로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그때 저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알지 기억하고 있지,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더라는 것이다. 그때 참 큰 것을 깨달았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왜? 거듭난 생명만이 연합이 가능하다. 구속된 생명만 연합이 가능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비참하고 답답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야 연합이 된다. 내가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연합이 안 된다. 내가 조금만 선한 것이 있어도 연합이 안 된다.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80점인데 이 사람은 70점을 맞으면 연합이 안 된다. 연합이라는 것은 둘이 똑같아야 한다. 완전히 같아야 한다. 완전히 같을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 안에서 밖에는 똑같은 자리가 없다.

도둑질한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도둑질을 해서 다 모아서 나눠가져야 하는데 뭐가 하나가 없어졌다.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중에도 양심이 없는 놈이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자기들 세계에는 자기들 세계대로 양심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존재다.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 언제 봐도 그 사람, 자다 일어나 봐도 그 사람, 꿈꾸다 봐도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뭐가 됐는데 예배당을 떠나면 딴 사람이 되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 월요일부터 식어 내려가서 토요일이 되면 김이 다 빠져 버린다. 그러면 주일날 충전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주일날 교인이라고 한다.

언제고 똑같은 사람, 언제 봐도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나는 나를 발견하니까 너무 편안하다.** 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면 이것이 불안하다. 언제 빛나갈지 모르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니까 항상 봐도 그 사람이다. 변하는가? 안 변한다. 나는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변한다.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것은 변할 수가 있다. 아는 것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든든한가. 내 자신이 얼마나 확고한가. 내가 내 힘에 의존하고 내 생각에 의존할 때는 강한 것 같은데 불안하다. 언제든지 불안하다. 언제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좀 모셔보려고 많이 해봤다. C.C.C.에 들어가니까 사영리 책자가 있다. 그 책자를 보셨을 것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모신다고, 성령을 모신다고 가슴에 의자를 하나 그려놓

고 전도를 했다.

그림을 보니까 정말 명쾌하고 맞는데 의자에 앉히려니까 안 되더라. 예수님을 좀 앉혀보려니까 안 앉혀진다. 아침에 앉았다가 저녁에 보면 어디 나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참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찌 그것이 된다고 하는지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 변치 않는다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다. 나도 마음이야 변하지 않는다.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실제로 없다.

나도 고민을 많이 했다. 공짜인줄 아는가? 공짜가 아니고 나도 고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된 내가 그것이 나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확고한가. 이것은 누가 침해해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어떻게 누가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새 사람을 창조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으로 새로운 사람을 지었다. 새 생명을 지었다.**

그 사람으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지어지는 나라이지 어디 있는 나라가 아니다. 들어가는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

왜 가까왔는가?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생산이 시작된다. 십자가에 계시던 그분이 부활을 통해 생산된다. 우리를 통해 생산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생산이 자꾸 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자꾸 하면 안 된다.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낳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발전이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앞섰지만 얼마 안가면 뒤쳐진다. 왜? 우리 인구가 겨우 4천만이고 이것도 2023년이 되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지금도 열 사람이 죽으면 다섯 사람밖에 못 낳는데 뻘하다.

중국은 10억이 넘는 인구이다. 큰 소리를 칠 나라가 아무데도 없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앞에서 큰 소리를 칠 나라가 없다.

옛날에 이것을 예측을 못해서 산아제한을 시켰던 것이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아제한을 시켰다. 박\*희 대통령이 하나 잘못된 것이 산아제한을 시켜서 지금 인구가 줄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막 낳게 하는 것이다. 무작정 낳게 하는 것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믿으라.”**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지금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나라는 없다. 주기도문에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십시오. 그 말이다. 와야 된다.

###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과 더불어 건축된 당신의 나라이다.**

당신 혼자 만들 것이면 진즉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들려면 진즉 만들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못 만든다. 아무리 좋은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건축하겠는가? 재료가 필요하다.

나는 옛날에 그것을 봤다. 대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목수들 집 짓는 사람들인데, 누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 집 산에 가서 나무를 고른다. 기둥감, 서까래 감을 고른다. 설계도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다.

요즘에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 것을 안 하지만 적절한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집을 짓는다. 사장과 계약을 했는데 현장 소장이 온다. 현장 소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하면 재료들을 모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벽돌을 가져 오라고 하여 사방에서 여러 가지 벽돌을 가져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재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시키는, 연합시키는 그것이 현장 소장이 하는 일이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집을 못 짓는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더불어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나와 더불어 지어지는 나라니까 내가 거기에 포함된 나라라는 말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일 수도 있고 서까래일 수도 있고 기왓장일 수도 있다.

###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는 사람이다.**

**창세기 1장은 건축의 재료를, 2장은 연합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둘이 한 몸을 이를 지로다.

**교회는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연합으로 건축된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건축을 이야기한다.**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축, 건축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사회다.

**교회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이다.** 현재적으로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지금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좀 비가 새고 그래도 거기 와서 계셔야지 별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좋은 집이 없으면 좋은 자리에 못 갈 것이 아닌가? **교회가 장래로는 새 예루살렘이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에덴동산이다.** 교회는 시시한 것이 아니다. 지금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감이 열릴 때 처음부터 흥시감이 열리는가? 뚝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열려서 반은 떨어지고 반은 살아남는다. 그것이 가을에 보면 빨갭게 익는다.

요즘 나는 곱감을 하나씩 먹는 재미가 고소하다. 나는 변비 때문에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먹으니깐 변이 더 잘 나온다. 이놈이 들어가서 위장을 흔드는 모양이다. 위장을 괴롭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흔드는 모양이다.

변비로 고생을 하는데, 변비가 걸릴 줄 알았더니 의외로 더 쉽게 나온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해 보라. 그런데 여러분은 했다가 막히면 곤란하다. 나는 그것을 책임 못 진다.

### \* 연합으로 건축됨

연합으로 건축된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연합으로 건축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17:21).” “우리과 같이 그들도(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건축이다.

### \* 연합-생명의 연합

우리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다.

축구로 연합한 것도 아니고 등산으로 연합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온전히 생명으로 연합한 것이다. 그렇다고 축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연합은 이 연합과 다르다. 그리고 히틀러식 연합이나 김일성식 연합이 아니다. 총칼을 안 드니까 이것은 순전히 생명의 연합이다.

### 1.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 했다. 사탄의 제일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막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탄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이것이 가장 악한 놈이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괜히 헛 싸움 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이 좀 보기 싫다고 그것으로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있고 이런 싸움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전력 낭비다. 자기들 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속에서 자기와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괴로운 일이다. 아무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 속에 적이 있어서 싸운다. 인간은 이상한 동물이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안

싸우는 데 남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

또 부딪치면 싸우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다. 피플테리어인가 그놈과 같다. 누구든지 만나면 싸운다. 왜냐하면 진짜 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적개념**이 없다. 북한이 적인지 미국이 적인지 이것을 모른다. 그때 놀랐다.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사관학교를 온 아이들의 40%가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미국이라고 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배웠다. 주적개념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전쟁에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뒤로 돌아설 게 아닌가? 큰일이다.

우리도 주적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운다. 괜히 우리끼리 싸운다. 괜히 교회까지 와서 싸운다. 싸우려면 바깥에 나가서 싸우지 말이다.

어떤 교회에 자매님이 한 분이 있었다.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내가 싸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들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은 이야기도 하였다. 다 털어 놓았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면 그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다. 무엇하려고 싸우려고 교회를 가느냐고 평화를 얻으려고 교회를 가지 싸우려면 무엇을 하러 교회를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했다. 우리교회로 오라. 가지마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정 우리교회에 나오고 싶거든 그 시내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안 싸우는 데로 가라고 했다.

싸워보니까 진짜로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무리 옳아도 안 된다. 정의고 나발이고 다 소용이 없다. 내가 4년 동안 싸웠다.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없어졌다. 뒤로는 기도할 일도 없어졌다. 완전히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결국 내가 스스로 못 이겨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 2. 사탄의 나라(지식)

사탄은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다. 그 나라를 보라. 먹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고 또 아벨을 낳았다. 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가서 둘이 싸워서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였다. 분열이다. 만나면 분열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분열한다. 그러니 어디 가서 분열하지 않겠는가? 그 신성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 자리에서 형제간에 싸워서 하나를 죽였다. 그 역사가 계속 그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랬더니 네피림을 낳았다. 이들이 그 세대에서 당대에 유명한 자들이었다. 당대에 유명한 자들이는데 이들이 땅을 파괴하게 하였다. 땅을 버려 버렸다. 그래서 홍수가 난 것이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놈들이 또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바벨탑을 건축하러 갔다. 거기서 완전히 흩어져서 결국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완전히 분열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역사의 축소판이다. 지금도 똑같다. 그때로 끝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사건이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있다.

사탄의 일을 알면 우리는 전력을 모아서 사탄을 격파해야 되지 우리 형제와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를 해 주고 끌어안아야 된다.

적은 싸워야 되지 않은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쟁터에 나가면 전우애가 생긴다고 한다. 옆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죽으면 딱 열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적을 향해 총을 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제정신으로는 못한다고 한다. 전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적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 스스로 싸운다. 이것을 보고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고 한다. 이것도 불치병이다. 자기 속에서 면역체가 자기끼리 서로 싸운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다.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체가 나와서 싸워야 하는데 자기 세포에 총을 쏘 버리니 어떻게 되겠는가? 아주 무서운 병이다.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면 멸망이다. 우리가 무슨 일로든지, 작든 크든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은 **자가 면역 결핍증**이다. 거기서 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전술은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 기드온이 들어갈 때 항아리와 촛불을 가지고 가서 잠자고 있는 놈들 사이에 가서 두드려 놓으니까 잠자던 놈들이 깨어나서 서로 적인 줄 알고 다 죽었다고 한다.

가장 좋은 전술이다. 총 한 발 안 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죽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다. 적은 그것을 교란시키려고 한다. 갈라서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한다. 사탄도 똑같다.

### 3. 이스라엘 나라(혈통)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다.**

### 4. 예수의 나라(생명회복, 새 생명)

**예수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얻은 나라다.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침해할 수가 없다. 죽음으로 얻은 것이니까 그렇다.

이것을 건축하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였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런 생명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 여기에 있다. 다른 곳에는 아무 데도 소망이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한다. 주적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순모임 가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순모임을 가면서 교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가서 더듬거리고 앉았으면 안 된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훈련하고 가야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총도 가지지 않고 가서 무슨 전쟁을 하는가? 순 모임을 갈 때 전쟁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구세군은 그래서 군대라고 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참된 간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거기서 헛소리를 해버리면 전쟁이 되는가? 안 된다. 거기서 패전한 이야기나 하면 안 된다. 패전한 이야기는 덮어놓고 승전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6.25 때 군인들이 후퇴하다가 밥 좀 얻어먹고 가려고 태릉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입구에서 교장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관학교에는 패잔병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을 해다가 바깥에서 주고 먹고 가라고 했다 한다. 그것이 사관학교의 정신이다.

전쟁하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전쟁 중에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소화하고 와야지 교회 와서 다 내놓는 것은 똥을 싸놓고 치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내가 C.C.C.에 가서 한 번 혼났다. 충주에 있을 때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각 지역 보고를 하라고 했다. 거의 다 하고 나와 부산을 포함한 세 군데가 남았다.

내 차례가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다. 학생 수가 얼마냐고 하는데 12명이 있다고 하였더니 김목사님이 80명 간사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목사님 뭐가 잘못 된 게 아닙니까?’ 하고 대번에 쏘아붙이는 것이다.

생전 처음으로 쥐구멍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어디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더군다나 나는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정말 곤란했다.

내가 코가 쪽 빠져서 나오는데 어떤 간사가 하는 말이 ‘이목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C.C.C.의 보고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위로가 되었다. 나오니까 또 한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나왔다.

그런데 그래놓고 김목사님이 나를 부를 것이 아닌가? 불려서 왜 그 모양이냐고 할 것 아닌가? 아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로 알고 봤더니 청중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도 다 해 봤으니까 알고 있다. C.C.C. 운동을 했으니까 모르겠는가? 다 알고 있는데, 이래

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소리를 메주알고주알 하고 있으면, 사기가 짝 가라앉아 버린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

인간이 참 이상하다. 닭장의 병아리가 한 놈이 굶기 시작하면 다 굶는다. 사랑방에 놀다가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계속해서 하품한다. 사람은 별거 아니다. 똑 같다.

그때 큰 교훈을 받았다. ‘아! 이거였구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내가 직접 C.C.C.를 해 보니까 어떤 학생이 와서 이래서 전도가 안 되고 저래서 전도가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나까지 힘이 빠졌다. 듣고 있다 보니까 김이 다 빠져 버렸다.

그런데 갔다 와서 좀 안 됐더라도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일은 만나기로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희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재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알았다. ‘아하, 이것이구나. 김목사님이 그래서 날 그렇게 했구나. 그 뒤로 한 번도 뭐라고 안 했다. 그것을 막으려고 부정적인 보고를 막느라고 그랬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

똑같다. 한쪽에서는 가서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는 메뚜기들입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가나마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 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렇게 보고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 했다. 누가 정직하게 보고한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이 정직한 것이다. 알고 보면 정직하게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한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명은 못 들어가고 다 죽어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 긍정적인 사람은 들어갔다. 부정적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한 교훈이다.

우리도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될 것만 생각해야 된다. 안 되는 것은 제쳐버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될 것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될 것만 찾아도 한 없이 있다.

사과 한 상자를 세어보면 100개다. 좋은 것부터 골라 팔면 계속해서 좋은 것을 골라 팔 수 있다. 나쁜 것부터 골라 팔면 계속해서 나쁜 것을 골라 판다. 어느 가게에 손님이 가겠는가? 어느 가게가 잘 되겠는가? 좋은 것부터 파는 가게가 잘 되는 것이다.

끝까지 파는 것이니까 알고 보면 똑 같다. 사과 한 상자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좋은 것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주게 된다. 손님들은 그것을 안다. 저 주인은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주는구나. 그런데 다른 곳을 가니까 좋은 것은 두고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을 골라주면 속으로 이 주인은 나쁜 것을 골라주는구나 한다. 다음에 가겠는가? 안 간다. 나라도 안 간다. 여러분도 안 갈 것이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없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다 긍정적이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갖기 원하신다.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전투할 때 요령이 있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투를 하면 안 된다. 전열이 정비되어 있는 데 옆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총알 맞기 딱 알맞다. 휴가 갔다가 방금 온 사람이 제일 빨리 죽는다고 한다. 휴가 갔다가 와서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안 생각하고 어찌고 이려고 있는 판에 총알이 날아온다고 한다. 거기서 닳고 닳은 사람은 총알이 날아와도 안 맞는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은 이기고, 소극적으로 안 될 것만 찾고 다니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다. 사탄은 그런 사람만 찾아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에게 안 먹혀 들어가려면 저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날 때는 찬양한다.

#### [ 기 도 ]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지라도 도망갈 지라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격려하시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당신이 분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더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라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찾으셔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